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5. 1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- 英, 왓츠앱으로 하마스 지지한 경찰을 테러 혐의로 기소
 - 5.1 영국 경찰은 자국 경찰관인 「모하메드 아델」이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미지를 공유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었으며, 테러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
 - ※ 영국 내에서 하마스 등 테러단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는 대테러법 위반행위로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선고 가능
- 獨, 유럽의회 의원 10대 용의자에게 피습
 - 5.7 언론은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 「마티아스 에케」 의원이 유럽의회 선거 포스터를 붙이던 중 괴한 4명에게 습격당했으며, 용의자들은 18세의 독일인으로 동기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피습이 지속되고 있으며, 독일 내무부가 이와 관련 논의 할 예정이라고 부언
- 英, 항공기 內 폭탄 위협메일에 이륙 중단
 - 5.7 언론은 버뮤다에서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영국항공 소속 BA158편 내에 폭탄이 있다는 이메일이 전송되어,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대피하였으나 해당 메일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보도
 - ※ '22년 7월 영국 10대 소년이 SNS에 영국에서 스페인 메노르카로 향하던 항공기 內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게시물로 스페인 F-18이 출동한 사례가 있음

미 주

- 美, 대학가 전역에 反戰시위 확산
 - 5.5 언론은 지난 4.18 뉴욕 컬럼비아大 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계기로 미국 전역의 최소 40개 대학에서 반전시위가 진행되고 있으며, 지금까지 연행된 학생들은 약 2,200명에 달한다고 보도
 - ※ 컬럼비아大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은 실탄을 발포하기도 했으며, 컬럼비아大 당국은 시위 참가 학생들에게 정학 및 퇴학 조치를 예고

중 동

○ 이란, 이스라엘 돕는 영국 국방장관 등 제재 예정

- 5.2 언론은 이란 정부가 이스라엘의 테러 행위 등을 지원하는 英과 美의 개인 및 기관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으며, △비자 발급 및 영토 입국 불허 △은행계좌 차단 등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○ ISIS,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사원 테러 공격의 배후 자처

- 5.1 언론은 아프가니스탄 서부의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가 발생해 종교지도자인 이맘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사망했으며, ISIS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

○ 韓, 軍 드론 '26년까지 2배 확보

- 5.2 국방혁신위원회는 고도화하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'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의 드론을 확보하고 상용 드론을 대대급 이하 모든 부대에 배치하는 등의 '드론 전력 강화 방안'을 발표

※ 상용 드론은 군용 드론에 비해 위력은 작지만 가성비가 뛰어나 러시아·우크라이나전, 이스라엘·하마스·이란 등 중동 분쟁에서도 공격 무기로 활용 중

○ 파키스탄, '23.4월 前月대비 테러사건 대폭 급증

- 5.2 파키스탄 분쟁안보연구소는 自國內 테러사건이 4월 77건으로 前月 56건 대비 38% 증가하였으며, 카이버팍툰와州에서 테러사건의 73%가 발생하여 일부지역에서 집중적인 테러가 발생했다고 발표
- ※ 반면, 사상자는 前月 대비 9%감소(민간인 35명, 보안군 31명 등 70여명)

아프리카

○ 수단, 무장괴한 총격으로 적십자 직원 2명 사망

- 5.3 언론은 국제적십자위원회(ICRC)가 성명을 통해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무장괴한이 차량에 총격을 가했으며, 운전하던 적십자 직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고 보도

美, 역사상 최악의 테러(9.11) 주범 「빈 라덴」 사살 작전

- 미국은 9.11 테러* 후 ‘테러와의 전쟁’을 내세워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 장악했으나, 알카에다 수괴 「빈 라덴」 사살에는 실패했는데,
 - * 민간 항공기 납치 후 美 세계무역센터·국방부 건물에 충돌시켜 약 3천여명 사망
 - 美 정보당국이 오랜 첩보활동 끝에 파키스탄 內 「빈 라덴」이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, '11.5.2 01:00 작전을 수행하여 마침내 사살에 성공
- (정보입수) 미국은 파키스탄 內 소아마비 백신 무료 접종을 통해 채취한 혈액의 개인정보를 추적, 빈 라덴 자녀들의 DNA를 확보하여 결국 은신처 파악에 성공 說
(작전전개) 네이비실 특수부대원(25명)이 헬기로 접근, 1층으로 침투하여 알카에다 조직원을 제압하고 빈라덴을 포함한 가족들을 사살
- 당시, 내부에서 특수부대 투입과 은신처 미사일 공습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, 민간인 희생 등을 막기 위해 특수부대 투입을 최종 선택
 - EU 등 국제사회에서는 同 작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, 아랍권에선 비난이 이어졌으며 자국 內 군사작전에 배제된 파키스탄도 불만을 표출
- 한편, 「빈 라덴」 사망 이후 알카에다는 각국 지부 중심으로 독자 활동을 이어가다, 현재는 탈레반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조직 재건에 주력
- ⇒ 미국 또는 국내 美 대사관 등을 겨냥한 테러 선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, 우리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단체 동향 주시 필요

< 알카에다(AQ) >

- (목표·결성) 쏘세계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 및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「오사마 빈라덴」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던 각국 출신 對소련 항쟁 참전자들을 규합해 '88년 결성


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0), 미국('99.10), 캐나다('02.7) 등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예멘 알카에다(AQAP), 이슬람·무슬림 지지그룹(JNIM) 등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유 호텔 폭탄테러(사망 26명, 부상 56명)
'05.7 영국 런던 지하철과 버스 연쇄 폭탄테러(사망 56명, 부상 770명)
'01.9.11 美 항공기 4대 납치, 뉴욕 등에서 공중 충돌 테러(사망 2,996명)